

## 어떤 유형의 원조가 평화에 기여하는가?

최현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 연구이사)

박지연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조교수)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원조 공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분쟁국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과연 공여국은 원조 제공을 통해 분쟁의 종료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떤 유형의 원조가 내전의 종료를 기여하는가? 본 연구는 정부와 반군이 보유한 자원 간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대치 상태가 종료 즉, 내전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어떤 유형의 원조가 해당 균형의 깨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OECD 구분에 따른 7가지 유형의 원조를 독립변수로 다루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아프리카 34개 국가에서 관찰된 모든 내전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원조 공여와 분쟁 종료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콕스비례위험함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한 분석 결과, 아프리카 내전의 종료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조의 유형은 '예산지원(budget support)'이다.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큰 경우 혹은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내전이 종료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산지원의 절대 규모가 큰 경우에 정부는 자원 보유에서 우위를 확정함으로써, 반면 절대 규모와 무관하게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군이 자원 보유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상호 간 자원 보유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전의 종료가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글은 <박지연, 최현진. 2021. “어떤 유형의 원조가 분쟁 종료를 기여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 분쟁국을 대상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4권 2호, 페이지 151-172>를 개편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연구 설계
- IV. 통계분석
- V. 결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공여가 분쟁 완화 혹은  
평화 정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I. 서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지역 내 분쟁국에 대한 원조는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공여되어왔으며, 절대 규모의 측면에서도 지속적이며 동시에 안정적인 증가 추이를 보여 왔음.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7년간 분쟁의 경험을 가진 아프리카 34개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규모는 총 616,802 백만 달러에 달하는 바, 이는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국제사회 공여 규모의 64.32%에 해당함.<sup>1)</sup> 또한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분쟁국에 대하여 연평균 34,267 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재원을 공여해왔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에는 18,766 백만 달러였던 것이 2019년에는 46,537 백만 달러로 약 2.48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sup>2)</sup>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분쟁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sup>3)</sup> 따라서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공여가 분쟁 완화 혹은 평화 정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아프리카의 오랜 분쟁국 소말리아의 경우, 1980년대부터 시작된 여러 부족들의 반정부 활동이 1990년대부터는 무장 투쟁의 격화로 이어졌음. 당시 국제사회는 평화유지군 활동을 기반으로 인도적 구호 및 국가 재건을 위한 원조를 추진하였으나, 분쟁은 더욱 심화되었음.<sup>4)</sup> 최근까지도 국제사회는 소말리아에 대한 원조를 지속해오고 있지만,<sup>5)</sup> 같은 기간 소말리아에서는 23,385

1)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3.12.).

2) 2006년 세네갈과 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일시적인 원조 급증은 제외함.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3.12.).

3) OECD, International Support to Post-Conflict Transition: Rethinking Policy, Changing Practice,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OECD Publishing, 2012), [http://www.oecd-ilibrary.org/development/international-support-to-post-conflict-transition\\_9789264168336-en](http://www.oecd-ilibrary.org/development/international-support-to-post-conflict-transition_9789264168336-en)(검색일: 2021.2.15); OECD, Good development support in fragile, at-risk and crisis affected contexts (OECD Publishing, 2016), <http://dx.doi.org/10.1787/5jm0v3s71fs5-en>(검색일: 2021.2.15).

4) Bjarne Møller, The Somali Conflict: The role of external actors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09), 8-18,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59871/1/592906116.pdf>(검색일: 2021.2.15).

5) 예컨대 최근 10년간 국제사회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평균 1,195 백만 달러를 소말리아에 공여해왔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3.12.).

명이 무력충돌로 사망(battle death)하였음.<sup>6)</sup> 아프리카 분쟁국들 중 최근 5년간(2015~2019) 가장 큰 규모의 원조(22,599 백만 달러)를 공여 받은 에티오피아의 경우도 분쟁의 참혹한 상황들의 개선은 찾아보기 어려움. 같은 기간 무력충돌로 인한 에티오피아 내 전투 사망자는 연평균 25명 이상을 유지해왔음.<sup>7)</sup>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11월에 발생한 티그라이 분쟁으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였으며,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식량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sup>8)</sup> 요컨대,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원조 공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분쟁국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빈곤에 노출되어 있음.

본 연구는 아프리카 분쟁국에 대한 원조 공여가 목적인 바와 달리, 분쟁 완화 혹은 평화 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음. 특히 모든 유형의 원조가 목적달성에 실패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고 원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원조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함. 즉, “어떤 유형의 원조가 분쟁의 종료 즉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다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먼저 I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 질문을 서술하였음. 다음 II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하며, 연구가설을 도출함. III장은 연구 설계를 위한 장으로, 가설 검증을 위해 사례를 선정하고 변수를 선별함. 다음으로 IV장에서는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해석함. 마지막으로 V장의 결론에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를 서술함.

*본 연구는 모든 유형의 원조가 목적달성에 실패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고 원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원조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함.*

## II. 선행연구

원조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음. 먼저,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견이지만 원조 공여가 분쟁을 종료 혹은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음.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경우에는 국가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생필

*원조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음.*

6) Pettersson and Öberg, UCDP Battle-Related Deaths Dataset Codebook version 20.1,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2020), <https://ucdp.uu.se/downloads/index.html#battlerelated>(검색일: 2021.3.10).

7) Pettersson and Öberg (2020a).

8) International Crisis Group. “Finding a Path to Peace in Ethiopia’s Tigray Region,” <https://www.crisisgroup.org/africa/horn-africa/ethiopia/167-finding-path-peace-ethiopia-tigray-region>(검색일: 2021.2.15).

품에 대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 발생에 취약할 수 있음.<sup>9)</sup> 따라서 원조 공여가 수원국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개선시킨다면 분쟁은 예방 혹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원조 공여는 정부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분쟁 완화에 긍정적일 수 있음.<sup>10)</sup>

다음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분쟁 발생에 대한 원조 공여의 효과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함.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원조가 자원에 대한 소유권 다툼과 연계되기 때문에 민족갈등 등 여러 유형의 국가 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임.<sup>11)</sup> 유사한 맥락에서, 수원국 정부가 대규모의 원조를 공여 받게 되면 반군은 정부에 대한 공격의 유인이 높아짐. 왜냐하면 분쟁의 승리에 따른 효용이 원조로 인해 더욱 증가하기 때문임.<sup>12)</sup> 한편 원조 공여가 정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 혹은 지지와 연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군은 원조 공여 행위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주장도 있음.<sup>13)</sup> 예를 들어, 필리핀 분쟁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프로젝트 공여는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음. 해당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반군은 사업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사업을 중단시키 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사업의 추진이 정부의 정치적 지지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음.<sup>14)</sup>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원조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계의 논쟁

9) Paul Collier & Anke Hoeffler, "AID, Policy and Peace: Reducing the risks of civil conflict," *Defence and Peace Economics*, 13 (6), (2002), 435-450.

10) Paul Collier & Anke Hoeffler, "Unintended Consequences: Does Aid Promote Arms Rac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9 (1), (February, 2007), 1-27; Joppe de Ree and Eleonora Nillesen, "Aiding violence or peace?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the risk of civil conflict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8 (2), (March, 2009), 301-313.

11) Milton J. Esman, and Ronald J. Herring (eds), *Carrots, Sticks, and Ethnic Conflict: Rethinking Development Assistanc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12) Herschel I. Grossman, "Foreign aid and insurrection," *Defence Economics*, 3 (4), (1992), 275-288.

13) Andrew Beath, Fotini Christia, Ruben Enikolopov, "Can Development Programs Counter Insurgenc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Afghanistan," MIT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Research Paper, No. 2011-14, (December, 2017), <https://ssrn.com/abstract=1809677>(검색일: 2021.2.14); Benjamin Crost, Joseph Felner, Patrick Johnston, "Aid under Fire: Development Projects and Civil Conflict," *American Economic Review*, 104 (6), (June, 2014), 1833-1856; Findley MG, Young JK, "Fighting fire with fire? How (not) to neutralize an insurgency," *Civil Wars*, 9 (4), (2007), 378-401.

14) Benjamin Crost, Joseph Felner, Patrick Johnston (2014), pp. 1833-1856.

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정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술된 선행연구들은 원조를 이전(transfer)된 자원 규모의 합으로 이해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짐. 즉,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원조 유형이 분쟁의 지속 혹은 중단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물론 원조의 특정 유형을 대상으로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다른 연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식량 원조가 분쟁의 지속에 기여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분쟁의 시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 연구가 존재함.<sup>15)</sup> 또한 인도적 목적으로 공여된 생필품들은 분쟁지역에서 반군들에게 약탈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반군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는 주장도 발견됨.<sup>16)</sup> 그러나 전술한 선행연구들의 경우에도 원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효과를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하지는 못하였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 유형이 아닌 모든 유형의 원조를 대상으로 각 유형별 원조 공여가 분쟁의 지속과 종료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여 연구의 비교우위를 확보함. 요컨대 이 연구는 어떤 유형의 원조가 분쟁 종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원조 유형이 분쟁의 지속 혹은 중단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여기서 내전은 정부와 반군이 보유한 자원(resources) 간의 균형이 깨질 때 새로운 국면 즉, 내전의 종료 혹은 중단을 맞이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어떤 유형의 원조가 해당 균형의 깨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 이러한 전제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내전의 지속과 종료(termination)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정부와 반군 사이 ‘군사적 자원의 균형’ 여부를 지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임. 선행연구들은 제3국의 개입이나 원조를 통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 세력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유리한 위치에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함.<sup>17)</sup> 반면 상대적 열세에 놓인 세력은 패배하기 전에 협상에 나서 최소한의 보상과 안전을 확보

15) Nathan Nunn and Nancy Qian, “US Food Aid and Civil Conflict,” *American Economic Review*, 104 (6), (2014), 1630-1666.

16) Linda Polman, *The Crisis Caravan: What’s Wrong with Humanitarian Aid?* (New York: Henry Holt and Co., 2010), 121; Barnett M., *Empire of Humanity: A History of Humanitarianism*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2011).

17) Ibrahim A. Elbadawi and Nicholas Sambanis, *External Interventions and the Duration of Civil Wars* (World Bank, 2000), <http://www.jstor.com/stable/resrep02493>(검색일: 2021.2.15.); Patrick Regan, “Third-Party Interventions and the Duration of Intrastate Confli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6 (1), (2002), 55-73; Govinda Clayton, “Relative Rebel Strength and the Onset and Outcome of Civil War Medi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50 (5), (August, 2013), 609-622; Halvard Buhaug, Scott Gates and Päivi Lujala, “Geography, Rebel Capability, and the Duration of Civil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53 (4), (August, 2009), 544-569.

*본 연구의 가설은 '정부와 반군이 보유한 자원 간의 균형 깨짐에 기여하는 유형의 원조 공여가 분쟁의 종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임. 한편 Nielsen et al(2011)의 지적대로, 기존 연구들은 원조 규모 그 자체를 독립변수로 다루어 원조 규모의 변동성이 가진 효과를 충분히 소개하지는 못하고 있음.<sup>19)</sup> 본 연구는 유형별 원조 공여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더불어 유형별 공여 규모의 변동까지를 분석 범주에 포함하여 연구의 의의를 최대화함.*

해야 함.<sup>18)</sup>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정부와 반군이 보유한 자원 간의 균형 깨짐에 기여하는 유형의 원조 공여가 분쟁의 종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임. 한편 Nielsen et al(2011)의 지적대로, 기존 연구들은 원조 규모 그 자체를 독립변수로 다루어 원조 규모의 변동성이 가진 효과를 충분히 소개하지는 못하고 있음.<sup>19)</sup> 본 연구는 유형별 원조 공여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더불어 유형별 공여 규모의 변동까지를 분석 범주에 포함하여 연구의 의의를 최대화함.

### III.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프리카 내 분쟁국을 대상으로 원조가 분쟁의 지속과 종료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되, 원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봄. 연구대상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아프리카에서 관찰된 모든 무력 분쟁임. 2019년 현재, 아프리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소속 선진 공여국들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지역이며, 같은 시기 전 세계에서 일어난 내전 중 절반 이상(약 52%)이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음.<sup>20)</sup> 또한 원조규모와 분쟁기간의 측면에서 상당한 국가 간 편차(variation)가 존재하는 바, 아프리카는 원조가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본 연구의 분석기간 (2002~2019) 동안 총 51건의 분쟁이 34개 국가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중 19건은 2019년 현재 진행 중임. 분쟁은 아프리카내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산발적인 시기에 관찰되었으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본 연구의 분석기간(2002~2019) 동안 총 51건의 분쟁이 34개 국가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중 19건은 2019년 현재 진행 중임.<sup>21)</sup> 분쟁은 아프리카 내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산발적인 시기에 관찰되었으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한편 연구대상을 2002년부터 정한 까닭은 독립변수 즉, 원조의 유형별 데이터(배분액 기준)를 일관된 형태로 제공하는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CRS)의 자료가 200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임.

18) Patrick Regan (2002).

19) Richard A. Nielsen et al., "Foreign Aid Shocks as a Cause of Violent Armed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 (2), (April, 2011), 220.

20) Therese Pettersson and Magnus Öberg, "Organized Violence, 1989-2019," Journal of Peace Research, 57 (4), (2020b), 597-613.

21) 이 19건은 내전의 종료를 경험하지 않은 우측 절단 자료(right-censored observations)라 할 수 있음.

〈표 1〉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 사례(2002~2019)\*

분쟁번호 (Conflict ID)	국가	기간	분쟁번호 (Conflict ID)	국가	기간
372	말리	90-09/90~12/90~15	429	DR 콩고	
11347	말리	09-09/09~현재(6건)	314	우간다	71~현재(6건)/71~11
13611	말리	15~15	13646	케냐	15~현재
14113	말리	17~현재	287	부룬디	65-06/65-08/ 65-15/05~현재(3건)
375	세네갈	88-03/88~11	374	르완다	90-02/90~12/ 90-16/90~현재(2건)
442	모리타니	08~11	337	소말리아	82-02/82~현재(4건)
430	니제르	91~08	14074	소말리아	16~18
13639	니제르	15~현재	14197	소말리아	18~현재
419	코트디부아르	02-04/02~11/ 02~현재(2건)	329	에티오피아	64~16
360	부르키나파소	87~현재	413	에티오피아	74~13/74~16
13843	부르키나파소	17~현재	14935	에티오피아	19~현재
341	라이베리아	80~현재/80~03	326	에리트레아	93-03
353	카메룬	60~17	327	앙골라	75-02
13638	카메룬	15~16/15~현재	387	앙골라	89-04/89-07/89-09/ 89-17/89~현재(2건)
14129	카메룬	17~현재	332	모잠비크	77-14/77~16/ 77~현재
297	나이지리아	66-09/66~현재	14845	모잠비크	19~현재
424	나이지리아	03~04	386	알제리	85~현재(3건)/85~18
425	나이지리아	04~04	13721	알제리	14~15
13641	나이지리아	15~현재	14333	튀니지	15~16
416	중앙아프리카	01-02/01-06/ 01~13/01~현재(3건)	11346	리비아	11-11/11~15/ 11-17/11~현재(3건)
288	차드	66-03/66-10/ 66-18/66~현재(5건)	13694	리비아	15~현재
13640	차드	15~15/15~현재	309	수단	71~현재(4건)/71~18
408	콩고	93-02/93~16	11344	수단	11~11
265	DR콩고	61~14	11345	남수단	11~현재(5건)
283	DR콩고	64~현재(8건)/ 64-08/64~14	391	이집트	81~현재(2건)/81~14
			13648	이집트	14~현재

주1: \* 기간은 분쟁이 관찰된 기간에 해당하며, 현재는 2019년을 의미함.

주2: 국가가 동일하더라도 분쟁의 성격이 다른 경우, 새로운 분쟁번호가 부여됨. ID는 원자료의 번호를 그대로 활용함.

주3: 각 분쟁 사례 내 다수의 내전 에피소드가 관찰되는 경우는, 각각을 분리하여 기간을 명시함; 분쟁 기간을 편의상 년도로만 표기하나, 통계분석에서는 월일을 포함함.

자료: Petterson and Öberg (2020b).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내전의 종료 여부임. 해당 변수의 측정은 분쟁연구에 널리 활용<sup>22)</sup>되어온 옘살라대학 분쟁데이터(The Uppsala Conflict Data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내전의  
종료 여부임. 해당 변수  
의 측정은 분쟁연구에 널  
리 활용되어온 옘살라대학  
분쟁데이터(The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이하UCDP)를 활용함.

22) Joppe de Ree, Eleonora Nillesen, "Aiding violence or peace?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the risk of civil conflict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8 (2), (March, 2009), 302.

Program, 이하 UCDP)를 활용함. UCDP에 따르면, 국내 집단들 사이에 무력을 사용한 충돌이 발생하고, 해당 집단들 중 적어도 하나의 그룹이 정부에 속하는 경우를 무력분쟁으로 정의할 수 있음.<sup>23)</sup> 더불어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5명 이상이고 1,000명 미만인 경우는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 1,000명 이상인 경우는 ‘고강도 분쟁(high-intensity conflict)’으로 분류함.<sup>24)</sup> 본 연구의 대상은 저강도와 고강도 분쟁을 모두 포함하는 내전이며, 최근 12개월 간 전투로 인한 사망자 수가 25명 이상으로 올라갈 때 내전이 시작되고, 24명 이하로 떨어질 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sup>25)</sup> 따라서 종속변수는 내전이 시작되거나 지속된 해에는 0, 종료된 해에는 1의 값을 가짐.

*다음으로 연구의 독립변수는 유형별 원조임. 원조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OECD CRS에서 구분하고 있는 원조의 유형(Type of Aid)을 차용함.*

다음으로 연구의 독립변수는 유형별 원조임. 원조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OECD CRS에서 구분하고 있는 원조의 유형(Type of Aid)을 차용함. OECD CRS에서 다루는 원조의 유형은 8가지이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sup>26)</sup>

- 첫째, 예산지원(Budget support)은 공여국이 자금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포기한 형태의 원조임. 거시경제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 빈곤 감소 전략 및 분야별 정책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수원국 정부의 국고로 자원이 이전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 해당 재원은 수원국의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는 측면에서 공여국이 특정 용도로 자금을 배정하는 여타 원조 유형과는 구별됨.
- 핵심지원, 공동프로그램 및 기금(Core contributions and pooled programmes and funds: 이하 공동프로그램) 지원이 원조의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함. 본 유형은 공여국이 다른 이해 관계자 즉, 다른 공여국, 비정부기구, 다자기관, 공공과 민간 간의 파트너십 등과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자금에 대한 통제권이 여러 행위자와 공유된다는 특징을 가짐. 여기에는 첫째, 비정부기구, 기타 민간단체, 공공과 민간 간의 파트너십 및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 둘째, 다자간 기관에 대한 기여 셋째, 실행 파트너가 관리하는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자금에 대한 기부 넷째, 바스켓 펀드와 풀링 펀드를 활용한 공여 등이 포함됨.

23) UCDP, “Definitions: conflict armed,” [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6733473558648513\\_9](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6733473558648513_9)(검색일: 2021.3.3).

24) Bethany Lacina, Nils P. Gleditsch, “Monitoring Trends in Global Combat: A New Dataset of Battle Death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1, (2005), 145-166.

25) ‘25명의 전투사망자’라는 임계값(threshold)을 기준으로 내전의 개시와 종료를 정의하는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의 개시와 종료 여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 내전의 지속기간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UCDP 프로젝트가 제시한 임계값을 기준으로 내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의 예로 Clayton (2013)과 Buhaug et al. (2009) 등을 들 수 있음.

26) 이하 원조 유형의 구분은 OECD CRS Types of Aid를 참조하여 정리함. OECD CRS, “Types of Aid,”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type-aid.htm>(검색일: 2021.3.3).

- 세 번째 원조 유형으로서 프로젝트 원조(Project-type interventions)는 정해진 예산을 사용하여 정해진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프레임 내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합의한 활동들의 집합을 의미함. 해당 프로젝트는 예산, 참여자, 기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예를 들어 소규모 재정 자원을 포함하고 2~3개월 지속되는 소규모 프로젝트가 있으며 반면, 대규모 프로젝트는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포함하고 연속적인 단계를 수반하며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음. 다양한 구성 요소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 즉, 프로그램 지원도 여기에 해당하며, 인도적 지원 또는 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의 경우 직접 합의가 없더라도 프로젝트 원조로 정의함.
- 넷째,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 지원(Experts and other technical assistance: 이하 기술지원)은 인력, 훈련 및 연구 형태의 노하우 제공을 의미함. 노하우 제공을 위해 컨설턴트, 교사, 학자, 연구자, 자원 봉사자 등 전문가가 수원국에 파견되며,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단체가 자금을 공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함.
- 다섯째, 공여국에서 수원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기타 비용(Scholarships and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이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원조의 한 유형으로 구분함.
- 원조의 여섯 번째 유형은 부채탕감(Debt Relief)이며, 여기에는 부채와 관련된 모든 조치 예를 들어, 전환, 스왑, 환매, 일정 조정, 재융자 등이 포함됨.
- 일곱 번째 원조의 유형은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not included elsewhere)으로 다른 원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임.
- 마지막으로 위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기타 공여국 내에서 수원국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Other in-donor expenditures)이 있음. 수원국 개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사회 옹호(advocacy)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수원국 출신의 난민에 대한 공여국 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됨.

본 연구는 전술한 원조의 유형 중 기타 공여국 내에서 지출되는 수원국 개발과 관련한 비용(Other in-donor expenditures)을 제외한 7개의 유형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해당 유형은 수원국으로의 자원 이전이 아닌 공여국 내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쟁국 정부와 반군 및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첫 번째 독립변수는 7가지 원조 유형의 연도별, 수원국별 공여규모(2018년 고정 미국달러)임. 단, 독립변수들 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평균값 0, 표준편차 값 1로 변수를 표준화하였음. 또한 내인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전이 진행 또는 종료된 연도(t)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년도(t-1) 값을 사용했음.

두 번째 독립변수는 유형별 원조의 1차 차분(first difference), 즉 전년도 원조 규모 대비 변화의 정도임. 이 변수는 원조의 증가와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각각 파악하기 위해 '증가'와 '감소'라는 두 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활용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정치 제도, 외부개입 여부, 영토 분쟁, 1인당 국민소득, 경제 성장률, 인구규모임.**

함. ‘증가’ 변수는 0보다 작은 1차 차분값을 0으로 처리함. 반면 ‘감소’ 변수는 0보다 큰 1차 차분값을 0으로 처리한 후 절댓값을 취함. 마지막으로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각 변수를 표준화하였음.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정치제도, 외부개입 여부, 영토분쟁,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인구규모임.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정치제도가 내전의 지속 혹은 종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가 차별적일 수는 있지만,<sup>27)</sup> 그 유의미성은 이미 수차례 검증되어온 바,<sup>28)</sup> 본 연구에서도 정치제도 변인을 주요한 통제변수 중 하나로 도입함. 본 연구에서는 정치 권력자 선출방식과 권력제한 등 제도적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Varieties of Democracy(V-Dem) 프로젝트의 Polyarchy 지표를 사용하여 정치제도 관련 변인을 통제함.<sup>29)</sup> 다음으로 본 연구는 외부의 군사개입이 내전의 지속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수용하여 해당 요인을 통제변수로 도입함. 다양한 논리적, 경험적 근거들이 군사개입의 효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외부 군사개입이 반군의 더욱 강력한 도발의 계기로 작용하며,<sup>30)</sup> 내전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발견됨.<sup>31)</sup> 본 연구에서 외부개입 변수는 UCDP의 분류에 따라 특정 년도에 제3국의 군사개입이 발생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매겼음.<sup>32)</sup>

27) James R. Vreeland, “The Effect of Political Regime on Civil War: Unpacking Anocrac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2 (3), (2008), 401-425.

28) Helen Fein, “Murder in the middle: Life-integrity violations and democracy in the world, 1987,” *Human Rights Quarterly*, 17 (1), (1995), 170-91; Tanja Ellingsen, Nils Petter Gleditsch, “Democracy and armed conflict in the third world,” In *Causes of conflict in third world countries*, edited by Ketil Volden and Dan Smith (Oslo: North-South Coalition and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7), 69-81; Patrick M. Regan, and Errol A. Henderson, “Democracy, threats and political repression in developing countries: are democracies internally less violent?,” *Third World Quarterly*, 23 (1), (2002), 119-36; Rodwan M. Abouharb, and David Cingranelli, *Human rights and structural adjust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9) Michael Coppedge et al., “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 V-Dem Dataset v11,” <https://doi.org/10.23696/vdems21>(검색일: 2021.3.10).

30) Stephen E. Gent, “Going in When it Counts: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Outcome of Civil Conflic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2 (4), (December, 2008), 713-735.

31) Frederic S. Pearson,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s and Domestic Disput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8 (3), (1974), 259-290.

32) UCDP, “Definitions: Third Party,” [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009453637414163607\\_50](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009453637414163607_50)(검색일: 2021.3.3).

또 다른 통제변수로 영토분쟁 여부를 도입함. 반군이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영토분쟁이 반정부 분쟁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한 것임.<sup>33)</sup> 영토분쟁 변수는 UCDP의 분류 (incompatibility)에 따라 분쟁의 목표가 영토의 분리·독립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음.<sup>34)</sup> 그 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통제변수로 도입한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과 인구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함. 해당 변수들은 세계은행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되, 이중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 규모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을 실시함.<sup>35)</sup>

#### IV. 통계분석

특정 유형의 원조가 내전 종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 따라서 각 국가가 내전의 발발 시점부터 내전의 종료를 경험하기까지 걸린 시간(또는 생존시간)을 분석에 포함하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모형 중 콕스비례위험함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이하 콕스 모형)을 사용함.<sup>36)</sup> 생존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콕스 모형은 ‘생존시간’의 분포에 대한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으며 분석년도(2002~2019) 이전에 내전이 발발한 중도절단사례(censored data)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본에 포함된 각 내전의 연도별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내전(Conflict ID)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활용하였음.

먼저 원조를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의 원조가 내전 지속 혹은 종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요약됨.

*각 국가가 내전의 발발 시점부터 내전의 종료를 경험하기까지 걸린 시간(또는 생존시간)을 분석에 포함하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모형 중 콕스 비례위험함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이하 콕스 모형)을 사용함.*

33) Julian Wucherpfennig et al., “Ethnicity, the State, and the Duration of Civil War,” *World Politics*, 64 (1), (2012), 79-115; Barbara F. Walter, “Explaining the Intractability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4), (2003), 137-153.

34) UCDP, “Definitions: INCOMPATIBILITY CONCERNING TERRITORY,” [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009453637414163607\\_2](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009453637414163607_2) (검색일: 2021.3.3).

35)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1.1.15).

36) Janet M. Box-Steffensmeier and Bradford S. Jones, “Time is of the Essence: Event History Models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4), (1997), 1417.

〈표 2〉 콕스 모형 분석 결과 I

	(1)	(2)	(3)	(4)	(5)	(6)	(7)
예산지원	0.323 (0.120)**						
공동프로그램		-0.041 (0.192)					
프로젝트			0.148 (0.277)				
기술지원				0.350 (0.218)			
부채탕감					-0.351 (0.210)		
행정비용						-0.274 (0.232)	
장학금							-0.221 (0.173)
정치제도	3.733 (1.285)**	3.509 (1.258)**	3.645 (1.267)**	3.526 (1.241)**	3.697 (1.253)**	3.645 (1.235)**	3.868 (1.218)**
외부개입	-1.709 (0.661)**	-1.672 (0.655)*	-1.728 (0.648)**	-1.916 (0.683)**	-1.724 (0.650)**	-1.568 (0.657)*	-1.779 (0.671)**
영토분쟁	0.862 (0.406)*	0.914 (0.416)*	0.856 (0.414)*	0.931 (0.407)*	0.897 (0.421)*	0.942 (0.432)*	0.867 (0.404)*
인구규모	-0.773 (0.257)**	-0.691 (0.250)**	-0.780 (0.329)*	-0.832 (0.267)**	-0.672 (0.244)**	-0.635 (0.268)*	-0.641 (0.234)**
1인당소득	-0.037 (0.177)	-0.027 (0.177)	-0.030 (0.175)	-0.082 (0.180)	-0.060 (0.181)	-0.001 (0.183)	0.093 (0.185)
경제성장률	-0.010 (0.009)	-0.010 (0.009)	-0.009 (0.009)	-0.006 (0.010)	-0.010 (0.009)	-0.011 (0.009)	-0.011 (0.008)
관측수	252	252	252	252	252	252	252
내전종료횟수	52	52	52	52	52	52	52
Wald $\chi^2$	59.56	53.04	55.85	55.50	57.51	66.98	57.24

주: 괄호 안은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 \*  $p < 0.05$ ; \*\*  $p < 0.01$ ; \*\*\*  $p < 0.001$

**첫째, 예산지원(budget support) 규모와 내전 종료 확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부채탕감(Debt relief) 규모와 내전 종료 확률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콕스 모형에서 양의 계수는 시간  $t$ 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시간  $t$ 에서 내전이 종료될 확률이 증가함을 나타내며, 음의 계수는 내전 종료 확률의 감소로 해석됨. 이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예산지원(budget support) 규모와 내전 종료 확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는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내전보다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예산지원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내전이 종료될 확률이 약 38% 증가함. 둘째, 부채탕감(Debt relief) 규모와 내전 종료 확률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셋째, 그밖에 독립변수들은 내전의 지속과 종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음으로 7가지 원조의 유형에 대하여 유형별 공여 규모의 (전년도 대비) 증감이 내전의 지속 혹은 종료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예산지원 규모의 증가와 감소 모두 내전의 종료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다만, 예산지원 규모의 '증가'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예산지원 규모의 '감소'는 99.9% 수준에서 유의함. 즉 예산지원의 급격한 감소는 매우 유의미한 수준으로 내전의 종료에 영향을 미치는 데, 구체적으로 '예산지원-감소'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내전이 종료될 확률이 약 38%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둘째, 프로젝트 원조 규모의 증가는 내전의 종료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프로젝트-증가'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내전이 종료될 확률이 약 34% 증가함. 셋째, 그 외 5가지 유형의 원조에 대하여 공여 규모의 증가 혹은 감소는 분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음으로 7가지 원조의 유형에 대하여 유형별 공여 규모의(전년도 대비) 증감이 내전의 지속 혹은 종료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 콕스 모형 분석 결과 II

	(8)	(9)	(10)	(11)
예산지원-증가	0.141 (0.113)			
예산지원-감소		0.320 (0.070)***		
프로젝트-증가			0.289 (0.141)*	
프로젝트-감소				-0.331 (0.572)
정치제도	3.625 (1.292)**	3.754 (1.263)**	3.834 (1.265)**	3.449 (1.230)**
외부개입	-1.731 (0.659)**	-1.664 (0.662)*	-1.664 (0.658)*	-1.685 (0.651)**
영토분쟁	0.886 (0.423)*	0.930 (0.413)*	0.840 (0.432)	0.924 (0.417)*
인구규모	-0.718 (0.248)**	-0.773 (0.250)**	-0.794 (0.250)**	-0.675 (0.246)**
1인당소득	-0.026 (0.175)	-0.045 (0.176)	-0.023 (0.172)	-0.027 (0.177)
경제성장률	-0.010 (0.009)	-0.009 (0.009)	-0.009 (0.009)	-0.010 (0.009)
관측수	252	252	252	252
내전종료횟수	52	52	52	52
Wald $\chi^2$	50.85	68.63	58.70	51.70

주: 괄호안은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 \*  $p < 0.05$ ; \*\*  $p < 0.01$ ; \*\*\*  $p < 0.001$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음. 내전은 정부와 반군 간 군사적 자원(military resources)의 균형이 깨질 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sup>37)</sup>

37) Ibrahim A. Elbadawi and Nicholas Sambanis, External Interventions and the Duration of Civil Wars (World Bank, 2000), <http://www.jstor.com/stable/resrep02493>(검색일: 2021.2.15).

**첫째, 원조의 7가지 유형들 중 예산지원은 공여 규모와 규모의 변화 측면에서 모두 아프리카 내전의 지속 혹은 종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둘째, 프로젝트 지원은 공여 규모 자체로는 분쟁의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급격한 원조 공여의 증대는 정부와 반군 간의 자원의 균형을 깨뜨리는데 기여할 수 있음.**

**분석 결과, 아프리카 내전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원조의 유형은 예산지원과 프로젝트 원조임을 확인하였음.**

전제(assumption) 하에, 본 통계분석 결과는 어떠한 형태의 자원 이전이 진행 중인 내전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가에 답하고 있음.

- 첫째, 원조의 7가지 유형들 중 예산지원은 공여 규모와 규모의 변화 측면에서 모두 아프리카 내전의 지속 혹은 종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것은 다른 유형의 원조와 달리 공여국의 통제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금성 공여로써 전쟁에 직면한 수원국 정부에 의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음. Collier & Hoeffler (2007)의 연구에 따르면, 1960-1999년 기간에 아프리카에 공여된 원조의 약 11.7%가 수원국의 국방예산으로 전용되었으며, 같은 기간 아프리카 국방예산의 약 40%가 원조를 통해 충당되었음.<sup>38)</sup> 이는 '예산지원' 형태의 원조가 정부와 반군 간 군사적 자원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 결과, 대규모 예산지원은 정부가 자원 보유의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여 분쟁 종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급격한 예산지원의 삭감은 반군이 자원 보유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도록 하여 분쟁 종료에 기여할 수 있음.
- 둘째, 프로젝트 지원은 공여 규모 자체로는 분쟁의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급격한 원조 공여의 증대는 정부와 반군 간의 자원의 균형을 깨뜨리는데 기여할 수 있음. 프로젝트 지원은 수원국에게 자원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자원의 사용권은 수원국에게 부여된다는 특징을 가짐. 따라서 공여 자체가 예산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급격한 공여 규모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제한적이거나 정부와 반군 간의 균형점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 V. 결론

본 연구는 모든 유형의 원조가 분쟁의 중단이나 완화라는 목적달성에 실패하는 것인가에 의문 가지고 “어떤 유형의 원조가 분쟁의 종료를 기여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였음. 분석 결과, 아프리카 내전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원조의 유형은 예산지원과 프로젝트 원조임을 확인하였음. 예를 들어, 예산지원 규모가 큰 경우와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내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또한 프로젝트 원조의 경우에는 공여 규모 자체는 분쟁 종료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 대비 급격한 규모의 증가는 분쟁 종료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내전은 정부와 반군이 보유한 군사적 자원의 균형이 깨질 때 종료를 기대할 수 있음. 어느 한 세력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평화 조약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임.<sup>39)</sup> 반대로 상대적 열세

38) Collier and Hoeffler (2007), pp. 12-13.

39) Patrick Regan (2002); Clayton (2013); Buhaug et al. (2009).

에 처하게 된 세력은 더 늦기 전에 협상에 나서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sup>40)</sup> 예산지원은 두 집단 간 자원의 균형을 깨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원조의 형태임. 실제로 예산지원은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이 통제권을 가지는 원조 유형으로 다른 유형의 원조와 차별화됨. 따라서 반군과 전쟁을 벌이는 수원국 정부는 경제개발 목적으로 지원된 예산을 무기구매와 군수지원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음. 그 결과, 예산지원 형태의 원조가 '내전의 종료'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됨.

본 연구는 국제사회가 수원국의 거버넌스 역량 등을 이유로 특히 분쟁국 정부에 대한 현금성 자원의 이전인 예산지원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sup>41)</sup> 실제로 분쟁의 종료에는 정부와 반군 간 군사적 자원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산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물론 여기에는 '개발재원의 군사적 전용'이라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함.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HDP nexus)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은 평화(분쟁의 종료)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예산지원과 분쟁 종료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본 연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함.

*본 연구는 국제사회가 수원국의 거버넌스 역량 등을 이유로 특히 분쟁국 정부에 대한 현금성 자원의 이전인 예산지원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분쟁의 종료에는 정부와 반군 간 군사적 자원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산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40) Patrick Regan (2002).

41) 예산지원은 수원국의 자원 소유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파리선언의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는 원조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분쟁국에 대한 예산지원은 수원국 정부에 대한 합법성 및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 유지 등에 대한 우려가 논의된 바 있음. S Koeberle, Z Stavreski & J Walliser (eds), Budget Support as More Effective Aid? Recent Experiences and Emerging Lesson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6), 267-293; Nadia Molenaers, "The Great Divide? Donor perceptions of budget support, eligibility and policy dialogue," Third World Quarterly, 33 (5), (May, 2012), 791-806.

## 참고문헌

- Abouharb, M. Rodwan and David Cingranelli. *Human rights and structural adjust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Barnett, Michael. *Empire of Humanity: A History of Humanitarianism*.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2011.
- Beath, Andrew, Fotini Christia, Ruben Enikolopov. “Can Development Programs Counter Insurgenc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Afghanistan.” *MIT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Research Paper*, No. 2011-14, (December, 2017).
- Box-Steffensmeier, M. Janet and Bradford S. Jones. “Time is of the Essence: Event History Models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4), (1997), 1414-1461.
- Buhaug, Halvard, Scott Gates, and Päivi Lujala. “Geography, Rebel Capability, and the Duration of Civil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53 (4), (August, 2009), 544-569.
- Clayton, Govinda. “Relative Rebel Strength and the Onset and Outcome of Civil War Medi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50 (5), (August, 2013), 609-622.
- Collier, Paul & Anke Hoeffler. “AID, Policy and Peace: Reducing the risks of civil conflict.” *Defence and Peace Economics*, 13 (6), (2002), 435-450.
- Collier, Paul, and Anke Hoeffler. “Unintended Consequences: Does Aid Promote Arms Rac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9 (1), (February, 2007), 1-27.
- Crost, Benjamin, Joseph Felter, and Patrick Johnston, “Aid under Fire: Development Projects and Civil Conflict.” *American Economic Review*, 104 (6), (June, 2014), 1833-1856.
- de Ree, Joppe, and Eleonora Nillesen. “Aiding violence or peace?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the risk of civil conflict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8 (2), (March, 2009), 301-313.
- Elbadawi A. Ibrahim, and Nicholas Sambanis. *External Interventions and the Duration of Civil Wars*. World Bank, 2000.
- Ellingsen, Tanja, and Nils Petter Gleditsch. “Democracy and armed conflict in the third world.” In *Causes of conflict in third world countries*. edited by Ketil Volden and Dan Smith. Oslo: North-South Coalition and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7.
- Esman, J. Milton and Ronald J. Herring, editors. *Carrots, Sticks, and Ethnic Conflict: Rethinking Development Assistanc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Fein, Helen. “Murder in the middle: Life-integrity violations and democracy in the world, 1987.” *Human Rights Quarterly*, 17 (1), (1995), 170-191.
- Findley, Michael, and Joseph K. Young. “Fighting fire with fire? How (not)

- to neutralize an insurgency.” *Civil Wars*, 9 (4), (2007), 378-401.
- Gent, E. Stephen. “Going in When it Counts: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Outcome of Civil Conflic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2 (4), (December, 2008), 713-735.
- Grossman, I. Herschel. “Foreign aid and insurrection.” *Defence Economics*, 3 (4), (1992), 275-288.
- Koerberle, S., Z Stavreski, and J Walliser (eds). *Budget Support as More Effective Aid? Recent Experiences and Emerging Lesson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6.
- Lacina, Bethany, and Nils P. Gleditsch. “Monitoring Trends in Global Combat: A New Dataset of Battle Death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1, (2005), 145-166.
- Molenaers, Nadia. “The Great Divide? Donor perceptions of budget support, eligibility and policy dialogue.” *Third World Quarterly*, 33 (5), (May, 2012), 791-806.
- Møller, Bjørn. *The Somali Conflict: The role of external actors*.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09.
- Nielsen, A. Richard et al. “Foreign Aid Shocks as a Cause of Violent Armed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 (2), (April, 2011), 219-232.
- Nunn, Nathan, and Nancy Qian. “US Food Aid and Civil Conflict.” *American Economic Review*, 104 (6), (2014), 1630-1666.
- OECD. *Good development support in fragile, at-risk and crisis affected contexts*. OECD Publishing, 2016.
- OECD. *International Support to Post-Conflict Transition: Rethinking Policy, Changing Practice,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OECD Publishing, 2012.
- Pearson, S. Frederic.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s and Domestic Disput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8 (3), (1974), 259-290.
- Pettersson, Therese, and Magnus Öberg. “Organized violence, 1989-2019.” *Journal of Peace Research*, 57 (4), (2020b), 597-613.
- Polman, Linda. *The Crisis Caravan: What’s Wrong with Humanitarian Aid?* New York: Henry Holt and Co., 2010.
- Regan, M. Patrick, and Errol A. Henderson. “Democracy, threats and political repression in developing countries: are democracies internally less violent?” *Third World Quarterly*, 23 (1), (2002), 119-136.
- Regan, M. Patrick. “Third-Party Interventions and the Duration of Intrastate Confli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6 (1), (2002), 55-73.
- Vreeland JR. “The Effect of Political Regime on Civil War: Unpacking Anocrac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2 (3), (2008), 401-425.
- Walter, Barbara. “Explaining the Intractability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4), (2003), 137-153.
- Wucherpennig, Julian, Nils W. Metternich, Lars-Erik Cederman, and

- Kristian Skrede Gleditsch. "Ethnicity, the State, and the Duration of Civil War." *World Politics*, 64 (1), (2012), 79-115.
- Zintl, Michaela, and Gabriele Holleeder. *Assessing the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East Afghanistan 2005 - 2009*.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0.
- Coppedge, Michael et al. "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 V-Dem Dataset v11." <https://doi.org/10.23696/vdems21>(검색일: 2021.3.10).
- International Crisis Group. "Finding a Path to Peace in Ethiopia's Tigray Region," <https://www.crisisgroup.org/africa/horn-africa/ethiopia/167-finding-path-peace-ethiopia-tigray-region>(검색일: 2021.2.15).
- J., Perlez. "Somalia aid workers split on troops." N.Y. Times (Nov. 27. 1992), <http://www.nytimes.com/1992/11/27/world/somalia-aid-workers-split-on-troops.html>(검색일: 2021.2.15).
-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3.12).
- OECD CRS, "Types of Aid,"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type-aid.htm>(검색일: 2021.3.3).
- Pettersson and Öberg, UCDP Battle-Related Deaths Dataset Codebook version 20.1,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2020a), <https://ucdp.uu.se/downloads/index.html#battlerelated>(검색일: 2021.3.10.).
- UCDP, "Definitions: Armed Conflict," [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6733473558648513\\_9](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6733473558648513_9)(검색일: 2021.3.3).
- UCDP, "Definitions: Third Party," [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009453637414163607\\_50](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009453637414163607_50)(검색일: 2021.3.3).
- UCDP, "Definitions: Incompatibility concerning Territory," [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009453637414163607\\_25](https://www.pcr.uu.se/research/ucdp/definitions/#tocjump_009453637414163607_25)(검색일: 2021.3.3).
-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21.1.15.).

❖ 저자 약력

■ 최현진

現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現 한국유엔체제학회 연구이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내전, 아프리카 정치 및 연구방법론 등이다.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Democratization* 등 다수의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였다.

■ 박지연

■ 現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연구 분야는 경제원조, 경제제재, 동북아시아 및 북한정치 등이다.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등 다수의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였다.

기획 및 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김애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